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89호
2024.01.11.(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 【EU】** EU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 ACI) 발효
- 【미국】** 美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발표
- 【인도】** 인도, 저가 스크류 및 후크 제품 수입금지 조치...한국産 제품 영향 주시

주요 산업별 이슈

- 【반도체】**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 일부 통제
- 【광물】** 중국희토그룹, 광동희토그룹 합병...中 희토류 산업 자원통합 가속화
- 【이차전지】** 남아공, 망간 등 배터리 소재 공급처로 부상

주간 이슈 포커스

- 【한국, 이차전지】** 韓,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원자재 뉴스 PLUS

- 【화학】** 인도, 한국産 4-T-부틸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발표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한국무역협회, 흑연 공급망 현황 및 대응방안 분석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홍해(수에즈) 운항 일시 중단에 따른 긴급 물류지원 특별사업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

EU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발표

- 📌 '23.12.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12.27일부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발효됨을 발표
 - *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제3국이 EU 역내 통상 체계를 위협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투자 제한·배상금 부과 등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률
 - » ACI가 발효됨에 따라,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관세 부과, ▲무역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공공조달 접근 제한, ▲배상금 부과 등 조치를 통한 대응 가능
- 📌 EU 집행위는 ACI로 세계무역기구(WTO) 개입이 어려운 제3국과의 통상 분쟁에 대해 자체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EU 집행위가 불공정이 의심되는 통상 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출처: EU 주간 브리핑 111호('24.01.03)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미국

美 상무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발표

- 📌 1.4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미국기업인 Microchip Technology社에 1억 6,200만 달러(약 2,136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
 - » 이번 조치는 자동차·방위·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통한 반도체 공급망 온쇼어링 지원 및 경제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상무부는 밝힘
 - » 해당 부품은 자동차·휴대폰·비행기·방위 산업기지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으로, 상무부 장관은 금번 지원 조치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단계라고 언급*
 - * 美 상무부는 지난 12.21일(현지 시간) '24.1월부터 미국 내 중국 범용 반도체 의존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분야에서 반도체를 활용하는 기업 100여 개사 대상, 반도체 조달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임을 발표
- 📌 이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에 의거한 두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美 상무부는 연내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예정
 - » 관계자들은 “해당 보조금으로 미국 공장 두 곳(콜로라도 주, 오리건 주)의 성숙노드* 및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 생산량을 3배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 * 성숙노드(mature node): 선단노드(advanced node)와 대비되는 최첨단이 아닌 오래된 공정

출처: 미국 상무부 보도자료('24.01.04), 로이터통신('24.01.05)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인도

인도, 저가 스크류 및 후크 제품 수입금지 조치...한국産 제품 영향 주시

- 🕒 1.3일(현지시간)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대외무역규정(Foreign Trade Policy) 개정을 통해 **저가 스크류 및 후크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
 - * (품목명) 철강으로 만든 볼트·너트·스크류 등 / (HS code) 7318류 7종(7318.11.10, 11.90, 12.00, 13.00, 14.00, 15.00, 19.00)
 - ▶▶ 개정 전에는 수입에 제한이 없었으나(Free), 규정 개정 이후 CIF129 INR/Kg를 초과하는 제품을 제외한 **상기 제품 전면 수입금지(Prohibited)**
- 🕒 동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産 저가 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나, 한국産 물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주의 필요
 - * 한국은 상기 제품의 대인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동 품목의 대인도 수출액은 '22년 약 6,844만 불(약 900억 원)을 기록
 - ▶▶ 인도 진출 韓 기업들이 기계·전기전자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국産 부분품 수입규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출처: 인도 대외무역총국 보도자료('24.01.03) 등 KOTRA 뉴델리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반도체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 일부 통제

- 🕒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성명을 통해 자국 정부가 **반도체 노광장비*** (NXT:2050i, NXT:2100i)에 대한 **운송 라이선스를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발표
 - * 노광장비: 극자외선(EUV) 등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사용됨
 - ▶▶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노광장비 대중 수출 금지 명령에 따라, ASML은 자동차·스마트폰·PC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취소**
 - ▶▶ 본 조치에 대해 ASML 측은 중국에 있는 소수 고객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본 조치와 美 최신 수출 통제 규제가 **자사 재무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첨언
- 🕒 美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자립화 시도를 봉쇄코자 하며, 해당 기조에 따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에 대한 **美 정부의 압력이 강화**되는 추세
 - ▶▶ 한편 中 외교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비난하며, 네덜란드 정부에 양국 공동 이익을 위한 **공정한 계약 이행과 추가 조치**를 촉구

출처: 블룸버그('24.01.02),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24.01.0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광물

중국희토그룹, 광동희토그룹 합병...中 희토류 산업 자원통합 가속화

- 1.1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中國稀土集團)*이 中 기업 광동희토그룹(廣東稀土集團)의 지분의 100%를 확보했다고 보도

 - * 중국희토그룹은 '21년 말에 기존의 중국알루미늄그룹, 오광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을 통폐합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로서, 중국 중희토 생산의 65% 이상, 전체 희토류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
 - ▶▶ 광동희토가 중국희토에 편입되면서 중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희토, 네이멍구 등 중국북부를 담당하는 북방희토, 남부 지역 기반의 샤먼텅스텐 등 기존 4대 희토류 국유기업은 3강 체제로 재편
 - ▶▶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국영 기업의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 보장 책임을 실천하는 한편, 중국희토그룹이 광동성 희토류 자원의 전문적 통합을 수행토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금번 합병으로 경희토류 중심의 북방희토(北方稀土)와 중희토류의 중국희토그룹으로 양분된 중국 희토류 산업 구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업계는 “중국 희토류 산업의 통합으로 산업 집중도가 제고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한편,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

출처: 증권일보('24.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이차전지

남아공, 망간 등 배터리 소재 공급처로 부상

- '23.12.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망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아공* 원자재 시장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 남아공은 세계 망간 광석 매장량의 약 42.6%를 보유한 세계 최대 망간 산지이며, 브라질과 호주가 각각 전체 매장량의 18%, 중국이 3.6%를 차지
 - ▶▶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에 근거, 지난 '23.11월 유럽의회·EU 이사회 간 합의 이후 정책 본격화
 -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30년까지 모든 단계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
- 기존 특수강·알루미늄 생산에 주로 쓰이던 망간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망간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여 망간 가격 상승 전망

 - ▶▶ 배터리 업계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망간을 늘린 하이망간 배터리를 개발중
 -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보츠와나·멕시코 등지에 20개의 망간 정제소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며, 해당 공장들이 가동되기까지 최소 몇 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3.12.30). 한국경제('24.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한국, 이차전지 韓,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23.12.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 동 방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등이 포함
- ▶ 금번 대책은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개요

| | | |
|-------------|-------|---|
| ① 법안·시스템 구축 | 강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 ▶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의 3단계 안전점검* 체계 도입 * (1단계)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 (2단계) 유통 전 안전검사 → (3단계) 사후검사 ▶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 확대 (30일 → 180일)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 | 기대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 ▶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단계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
| ② 제도 개편 | 강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 및 전문 심사인력 확대 통한 이차전지 특허심사기간 단축 (21개월 → 10개월)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 포함 |
| | 기대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 전기판매사업 허가 면제 및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 지원 |
| ③ 세제지원 강화 | 강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 * 투자·취득액의 3%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
| | 기대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 정·제련 기술 육성 촉진 통한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 |
| ④ 금융지원 확대 | 강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쏠분야에 향후 5년간 ('24~'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전폭 지원 ▶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 원)를 올해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R&D 분야에 '24년 총 736억원 투자 * 지난 '23.11.29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3.12.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화학

인도, 한국산 4-T-부틸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발표

📌 '23.12.20일(현지시간) 인도 무역규제총국은 ▲덤핑물량 증가, ▲국내 가격하락, ▲국내산업 피해여부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 韓美·싱가포르산 4-T-부틸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출처 KOTRA 뉴델리무역관 중첩]

* 4-T-부틸페놀(Para-Tertiary Butyl Phenol, PTBP) : 연료 및 안료용 원료(HS code: 2907.19.40)

- SI Group Korea에 208\$/MT, 그 밖의 한국 생산자에 357\$/MT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였으며, 인도 재무부에서 조사결과 발표이후 3개월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월 1주)

◆ [비철금속] 中 경기둔화 우려로 동 가격↓,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확대로 니켈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 | | 주간평균 (U\$/톤) | | |
|----|-------------|--------|--------|--------------|--------|--------|
| | '22년 | '23년 | 전년비(%) | 12.4주 | 1.1주 | 전주비(%) |
| 동 | 8,797 | 8,478 | △3.6 | 8,506 | 8,383 | △1.4 |
| 니켈 | 25,605 | 21,474 | △16.1 | 16,353 | 16,135 | △1.3 |
| 아연 | 3,478 | 2,647 | △23.9 | 2,622 | 2,556 | △2.5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 연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상승 및 中 경기둔화로 전동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했으나, 칠레의 대형광산 노후화 및 기물자속에 따른 용수부족 문제로 생산실적이 부진하며 상기 하방압력 부분 상쇄

📌 (니켈) 美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및 인도네시아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로 재고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격하방압력 발생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1월 1주차 니켈 재고량은 64,397톤으로 전주대비 5.1% 증가, 8주 연속 증가세로 니켈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세 지속

◆ [철강] 中 재고비축 수요확대로 철광석 가격↑, 中 석탄 공급량 증대로 유연탄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 | | 주간평균 (U\$/톤) | | |
|-----|-------------|--------|--------|--------------|--------|--------|
| | '22년 | '23년 | 전년비(%) | 12.4주 | 1.1주 | 전주비(%) |
| 연료탄 | 348.65 | 173.32 | △50.3 | 137.30 | 128.21 | △6.6 |
| 원료탄 | 364.99 | 295.71 | △19.0 | 323.75 | 330.06 | 1.9 |
| 철광석 | 120.26 | 119.32 | △0.8 | 140.85 | 143.35 | 1.8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춘절연휴를 앞둔 中 철광업계의 철광석 비축수요 확대에 따른 철광석 가격 상승세

▶ 다만, 中 주요 철강도시는 서안시와 은천시 정부는 환경규제를 위해 산업생산 제한 및 석탄 가공중단을 명령하는 등 수요측면의 하방리스크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 (유연탄) 中 경기둔화 및 석탄 증산여파에 따른 가격하방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월 1주)

◆ [희소금속] 철강·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정체된 영구자석 분야 수요 지속으로 가격↓

| 품목 |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 | |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 | |
|----------------|---------------------------|---------|--------|----------------------------|---------|--------|
| | '23년 | '24년 | 전년비(%) | 12.4주 | 1.1주 | 전주비(%) |
| 페로망간 | 1,551 | 1,266 | △18.4 | 1,125 | 1,125 | - |
| 탄산리튬 | 72,290 | 35,697 | △50.6 | 13,506 | 13,522 | 0.1 |
| 수산화리튬 | 67,180 | 35,994 | △46.4 | 13,142 | 11,771 | △10.4 |
| 코발트 | 31.20 | 17.82 | △42.9 | 16.85 | 16.66 | △1.1 |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 380,494 | 330,258 | △13.2 | 366,600 | 345,750 | △5.7 |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 133,607 | 78,383 | △41.3 | 64,120 | 61,925 | △3.4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 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부진한 해외 수요로 수출가 전주 가격 유지

📍 (탄산리튬) 연초 수요업체들은 가격 하향 전망 속 더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으나, 공급업체들의 추가적 가격 인하 거부로 현물거래 부진하며 주중 시장가격 유지

▶ 수산화리튬은 연초 비수기 중에 韓 등 주요국 수요량 감소와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주간 가격 큰 폭 하락, 시장참여자들은 1월 수요가 12월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코발트) '24년 시장 비관적 전망 대비 中 신규 국가 비축에 대한 기대에 따른 가격하방압력 부분 상쇄로 가격 소폭 하락

▶ 中 금속가는 신년 연휴 이후 제한된 거래량으로 가격 변동 없으며 국가비축국(SRB)이 2분기 중 상당량의 신규 비축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 기대가 존재하는 한편, 대다수 트레이더들은 '24년도 시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 보유

📍 (희토류) '24년도에도 영구자석 분야의 저조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으로, 산화디스프로슘·산화네오디뮴 가격 하락

◆ [에너지] 美 석유제품 재고량 증가 및 연준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위축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 품목 | 연평균 (\$/배럴) | | | 주간평균 (\$/배럴) | | |
|------|-------------|-------|-------|--------------|-------|-------|
| | '23년 | '24년 | 전월비 | 12.4주 | 1.1주 | 전주비 |
| 두바이유 | 82.10 | 77.53 | 0.20 | 78.75 | 77.34 | △1.41 |
| 브렌트유 | 82.17 | 77.32 | 0.00 | 79.04 | 77.24 | △1.80 |
| WTI | 77.60 | 71.97 | △0.15 | 73.28 | 71.76 | △1.52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美 석유제품 재고 증가,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美 연준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위축 등으로 인해 이란·러시아 등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우려는 하락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공급망 더 알아보기

흑연 공급망 현황 및 대응방안 분석



[작성]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원문] 도원빈('23.10.31), 중국 흑연 수출통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TB 18호

중국을 지난 10월 상무부 발표를 통해 2023년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흑연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중국의 수출 통제조치로 일시적 수급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3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이 동 조치를 미국에 대한 보복성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흑연의 특성과 한국의 교역 현황,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자.

○ 흑연의 특성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중요성

- ▶ (흑연의 특성 및 분류) 흑연은 순수 탄소로 이루어진 검은색 광물로 높은 내열성과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방식에 따라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천연흑연) 자연에서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주로 중국, 모잠비크, 브라질 등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초기 충·방전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개선된 이후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 매장량이 없는 지역에서는 자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큰 원료임
- ▶ (인조흑연) 코크스, 피치 등 석유화학과 제철 산업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에 2,500°C 이상의 고열을 가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짐
 - 천연흑연 매장량이 없는 국가에서도 자급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천연흑연 대비 수명이 2~3배 우수함
- ▶ (배터리 산업에서의 활용)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일부 제조사의 경우 흑연에 실리콘을 일정 비율(5~10%)로 혼합하여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중국 수출통제 및 한-중 흑연 교역의존도

- ▶ (중국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23.10.20.)
 - 고순도(>99.9%), 고강도(>30Mpa), 고밀도(>1.73g/cm³) 인조흑연 및 제품, 천연흑연 및 제품 등 9개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

- 흑연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중용도* 여부를 심사받아 수출을 허가받는 방식으로, 완전한 수출 금지와는 다른 개념이며 허가를 받을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재개가 가능함
- * 이중용도 물품은 군사·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독성화학물질, 핵, 바이오, 미사일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을 포함
- ▶ **(한국의 대중국 흑연 수입의존도)** 2023년 1~9월 기준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천연흑연이 97.7%, 인조흑연이 94.3%로 사실상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천연흑연의 대중국 수입비중은 2020년 대비 7.0%p 증가, 인조흑연은 10.2%p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남
- 스리랑카,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도 흑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작아 미미한 수준
- ▶ **(중국의 대세계 흑연 수출)** 우리나라는 중국의 흑연 2위 수출국이며, 1위는 미국이 차지
-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기업이 음극재 제조용 흑연을 대량 수입하면서 중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 사례 분석을 통한 수출통제 영향 예측

- ▶ **(과거 흑연 수출 통제 사례)** 중국은 지난 2006년 9월에도 흑연 수출을 통제할 바 있으며, 통제 시행 직후 2개월간 흑연 수출이 일시 급락했으나 이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금번 수출통제 조치도 기존('06.9월)의 통제 대상 목록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과의 비교)**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로 8월 수출이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정상화 가능성 암시

📌 중장기적 대응 방안

- ▶ **(천연흑연) 수입선 다변화 및 생산 잠재성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필요**
- 현재 중국이 천연흑연의 글로벌 생산량의 큰 부분(63.1%)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잠비크(13.1%)와 브라질(6.7%)등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터키(27.3%)와 브라질(22.4%)등 국가에서 풍부한 천연흑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약 1.5배 수준임
- ▶ **(인조흑연) 국내 인조흑연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통해 흑연 수요를 줄여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인조흑연 순수입국 중 하나이며,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흑연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자체적인 생산량은 제한적이기 때문
- 장기적으로 고용량·친환경적인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하는 추세로 전환될 경우 2035년에는 흑연 음극재 비중이 5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공급망 소식통

홍해(수에즈) 운항 일시 중단에 따른 긴급 물류지원 특별사업 안내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홍해 운항 일시 중단에 따른 물류지연 애로사항(인수 거부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해 **美 동부·유럽·중동 일부지역 내 공동물류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향후 거래선 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적정 안전재고 보유를 통한 지속적 거래기반을 제공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 일시/장소 : '24.1.2.(화) 9:00 ~ **예산소진 시까지**
- ▶ 지원기간 : '24.1.1.(월) ~ '24.10.31.(목) * 차년도 이월 불가
- ▶ 지원규모 : 30여개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 구분 | 내용 | | | | 비고 |
|--------|--|---------------------------------|----------------|-------------------------|--------------------------------------|
| 지원대상 | - 해당 지역으로 수출하는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기업 | | | | - |
| 지원방식 | - 매칭펀드로 지원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중견기업(50%), VAT 포함) | | |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 (총 10단계 중 택일) |
|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한도 총액(A+B) | |
| | 참가비(A) | 3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500만 원 | 최소 1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
| 신청 무역관 | -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운송하는 美 동부 지역, 유럽 전역, 중동 일부 지역 | | | | 1개사 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
| | 구분 | 대상무역관 | | | |
| | 美 동부 | 뉴욕, 워싱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달라스, 애틀랜타 | | | |
| | 유럽 |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브뤼셀, 파리, 바르샤바 등 전체 | | | |
| | 중동 | 이스탄불, 암만, 카이로, 이스라엘 | | | |
| 지원사항 | -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 (현지 창고보관·입출고·포장·통관·반품·내륙운송 등) | | | | |
| 주의사항 |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 - 동일무역관 국고지원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 국고 미지원 기업은 신청 가능 - 항공·해상 등 국제운송비 미지원 (필요시 해당 물류사와 직접 정산) | | | | 선정 시 기존 대기신청 건 자동취소 |

사업 신청·문의

- ▶ 참가신청 : [\[KOTRA 무역투자24 사업신청 페이지\]](#) 내 설명회 공고 선택하여 참가신청
- ▶ 관련 문의 : ☎ 02-3460-7445, 7430 (KOTRA 지사화물류팀)

글로벌 경제지표 (24.1.10.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 | '21말 | '22.말 | '23.12말 | 1/5 | 1/8 | 1/9 | 전일비 | 23말비 |
|---------------|----------|----------|----------|----------|----------|----------|--------|--------|
| ₩/US\$ | 1,188.80 | 1,264.50 | 1,288.00 | 1,315.40 | 1,316.00 | 1,315.70 | △0.02% | 2.15% |
| 선물환(NDF, 1월물) | 1,190.00 | 1,265.30 | 1,286.80 | 1,313.40 | 1,313.30 | 1,312.50 | △0.06% | 2.00% |
| ₩/CNY | 186.51 | 181.44 | 181.37 | 182.94 | 183.69 | 183.79 | 0.05% | 1.33% |
| ₩/Y100 | 1,032.48 | 945.56 | 912.25 | 906.07 | 912.68 | 914.19 | 0.17% | 0.21% |
| Y/US\$ | 115.14 | 133.73 | 141.19 | 145.18 | 144.19 | 143.92 | △0.19% | 1.93% |
| US\$/EUR | 1.1318 | 1.0617 | 1.1105 | 1.0929 | 1.0941 | 1.0950 | 0.08% | △1.40% |
| CNY/US\$ | 6.3681 | 6.9630 | 7.1092 | 7.1680 | 7.1566 | 7.1604 | 0.05% | 0.72% |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10.4 (₩/¥100) 913.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 구 분 | '23년 최저(해당일) | '23.12.29 | '24.1.8(전일) | '24.1.9 | 비율 | | |
|---------|--------------------|-----------|-------------|-----------|--------|---------|--------|
| | | | | | 전일비 | '23년최저비 | '23년말비 |
| 원유(두바이) | 70.31(3.20일) | 77.08 | 77.87 | 76.84 | △1.0 | 6.5 | △0.2 |
| | | | | | △1.3% | 9.3% | △0.3% |
| 철광석 | 97.35(5.24일) | 140.50 | 139.40 | 139.10 | △0.3 | 41.8 | △1.4 |
| | | | | | △0.2% | 42.9% | △1.0% |
| 비철금속 | 구리 7,812.50(10.5일) | 8,476.00 | 8,295.00 | 9,301.50 | 1006.5 | 1489.0 | 825.5 |
| | | | | | 12.1% | 19.1% | 9.7% |
| | | | | | △5.5 | 131.5 | △135.5 |
| 알루미늄 | 2,068.50(8.21일) | 2,335.50 | 2,205.50 | 2,200.00 | △0.2% | 6.4% | △5.8% |
| | | | | | 220.0 | 265.0 | △150.0 |
| 니켈 | 15,885.00(11.27일) | 16,300.00 | 15,930.00 | 16,150.00 | 1.4% | 1.7% | △0.9% |
| | | | | | | | |

반도체

| | '21 | '22 | '23.10월 | '23.11월 | '23.12월 | 1/4 | 1/5 | 1/8 | 1월(-8) |
|------------------------|-------|--------|---------|---------|---------|-------|-------|-------|--------|
|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3.99 | 3.07 | 1.55 | 1.66 | 1.74 | 1.79 | 1.81 | 1.82 | 1.79 |
| (%, YoY) | 29.9% | △23.0% | △35.6% | △23.1% | △14.8% | △6.9% | △5.5% | △4.7% | △7.1% |
|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6.55 | 7.25 | 6.40 | 6.42 | 6.38 | 6.35 | 6.36 | 6.37 | 6.36 |
| (%, YoY) | 14.7% | 10.7% | △2.6% | △1.7% | △2.3% | △2.9% | △1.7% | △1.6% | △2.3%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 구 분 | '21.12.31 | '22.12.30 | '23.12.22 | 12.29 | 1.5 | 전주비(12.29) | '22년말비 |
|------|-----------|-----------|-----------|---------|---------|------------|--------|
| SCFI | 5046.66 | 1107.55 | 1254.99 | 1759.57 | 1896.65 | 7.8% | 71.2%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 구 분 | '22.12.23 | '23.12.22 | '24.1.2 | 1.3 | 1.4 | 1.5 | 1.8 | 전일비(12.21) | '22년말비 |
|-----|-----------|-----------|---------|------|------|------|------|------------|--------|
| BDI | 1515 | 2094 | 2093 | 2091 | 2086 | 2110 | 2022 | △4.2% | △3.4%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